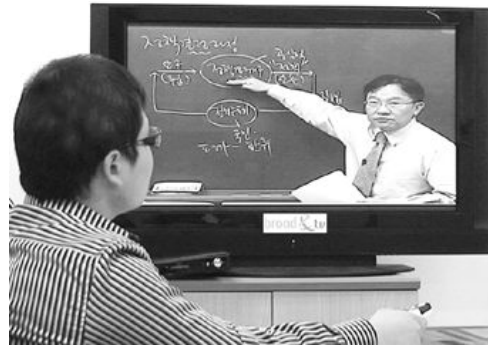


2009학년도 수능 D-14

마무리는 EBS교재 활용

2009학년도 수능일(11월13일)이 딱 2주 남았다. 수험생들은 수능이 눈 앞에 닥쳤다는 스트레스에 각 대학의 수시2학기 전형 합격자 발표로 인한 혼란스러움도 더해지는 시기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도 EBS 교재와 30% 이상 연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모의고사의 출제경향이 수능에서도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EBS 교재는 수능 대비 마무리 교재로 더없이 좋다.



언어- 문학작품 익히며 독해 감각 유지

수리 모의고사 유사 문제 찾아 풀어보면 효과
과탐 기출 문제 중요...그림·도표 자료 정리

언어영역

EBS 교재에 출제되는 문학작품을 자주 접하고 복합문화(현대문화+고전문학) 출제 패턴을 익히는 연습에 주력해야 한다. 언어영역은 문항 수가 50문항으로 축소된 뒤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권 학생들은 실전형 연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고난도 문항을 많이 접하면서 유형을 눈에 익혀 수능에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실전을 위해 EBS 파이널을 놓고 시간배분 연습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두 문제로 점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어영역은 50문항을 7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듣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고 푸는 문제 33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한다.

외국어영역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기 보다는 기존 유형의 변형이 주세다. 따라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글 전반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요점정리 노트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고, 시기도, 요점을 정리해두지 않은 수험생은 기출문제나 EBS 수능 특강 10주 완성 교재를 놓고 약한 부분을 복습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항이 다수 나왔으며, 여러 개념과 원리를 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주제별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수능을 10여일 남긴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EBS 교재다. EBS 교재로 막바지 수능 준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교과지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적인 소재가 빈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리해두면 도움을 준다. 특히 그림·지도·도표 등이 등장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강조되는 영역이다.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신 유형의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에 이미 제시된 그림이나 도표 자료를 익히는 것이 도움을

준다. 낯선 자료가 제시된다 해도 해당 교과서 안에 있기 마련이다. 여러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지를 묻는 통합형 문항에는 종단원별 개념을 정리하고 서로 연관시키는 방법으로 대비해야 한다.

과학 개념을 실생활과 연관시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과서에 소개된 읽기 자료나 심화 자료는 물론 과학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 수능 최저등급 적용 안돼
정시,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전문대 입시 전형 전략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심하다. 경기침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 최근엔 더욱 더 그렇다. 각 대학들은 특색있는 학과를 설치해 학생을 유치에 나서고 있다.

수시 전형

대부분 학생부 성적만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4년제 대학과 달리 수능최저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학과에 한해 실기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

또 반영되는 학생부 성적 역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특정 학년, 특정 학기의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자신있는 기간과 학과의 반영 방식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지원가능 폭은 더 넓어진다.

학생부 성적을 일정한 기간만 제출하기 때문에 동점자가 생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이 세 워놓은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시 전형

전문대 정시 전형의 특징은 군별 구분이 없다는 것. 수험생이 원하는 만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복수합격

으로 수험생의 이동이 많아 수능이나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추가합격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전문대는 수능의 계열에 관계 없이 모든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 2~3개 영역만을 적용하는 곳도 많아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만을 반영하는 학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 정시의 일반 전형은 대개 수능과 학생부 성적 반영비율을 6대4로 하고 있다. 수능 점수는 백분위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 전연계고 수험생을 위해 직업탐구 영역도 반영하므로 정시에서도 선택폭이 넓어졌다. 특별 전형은 학생부 100% 전형이므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도움말=진학사 운동본부장〉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목포·순천·여수 평준화 지역 고교
특목고 보다 명문대학 진학률 높다

목포와 순천, 여수 등 도내 평준화 지역 고교가 특목고나 유명 사립고보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률은 현행 입시체제가 내신과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균형 선장학관을 28일 나주교육청에서 열린 '내고장 학교 보내기 학부모 연찬회'에서 "지난 2004년 도내 중학교 상위 1% 이내 최우수 졸업생 162명의 울

대학 진학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 학교에 보내는 것이 무난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현행 입시체제가 내신과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균형 선장학관을 28일 나주교육청에서 열린 '내고장 학교 보내기 학부모 연찬회'에서 "지난 2004년 도내 중학교 상위 1% 이내 최우수 졸업생 162명의 울

교를 도내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전남과학고 등 특목고, 광양제철고 등 도내 5개 사립고, 전주 상산고 등 타 시도 학교 등으로 구별한 뒤 진학 대학을 A군(서울대), B군(고려대, 연세대, 경향대 등 5개 대학), C군(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으로 분류했다.

김 장학관은 "타 시도 명문고에 진학한 상당수 학생이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 학교로 되돌아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내신성적을 중시하는 수시모집 확대, 지역균형선발제 등도 지역학교가 유리한 대목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옛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

조선대 박물관(관장 이기길)은 11월7~8일 경북 안동 일대에서 '현장 강화'가 있는 역사문화기행'을 진행한다.

'더불어 퇴계 선생 걸던 오솔길을 거닐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역사문화기행에는 '안동, 결코 잊지 못할 48시간'이 동행해 중부함을 더한다. 안동은 대학자들이 유난히 많이 배움터였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적 고향'으로 불린다. 참가자들은 청량산과 낙동강의 수려함을 곁에 둔 농암종택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퇴계 이황이 거닐던 것으로 알려진 강변길을 산책한다.

안동시 도산면 가솔리 농암종택은 조선 중기 문신 이현보(李賢輔·1467~1555)가 연산군에 의해 안동으로 유배돼 지냈던 곳이다. 농암(龍巖)은 이현보의 호다. 도산서원과 유교문화박물관에

조선대 박물관 내달 7~8일
경북 안동서 역사문화기행

서 옛 선비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양치바른 임청각을 방문한다. 고성 이씨 종택인 임청각은 보물 제182호로 조선의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다. 일정은 깊은 가을이 내려앉은 봉정사의 영산암 우화루, 서예 유성룡의 병산서원으로 이어진다.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6만원이다. 문의 062-230-6333.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Includes sections for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with movie listings and showtimes.